

제2공항 여론수렴방식 '접점 찾기'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11~12일 도의회·예정지 방문 중재 역할 기대... "도정·의회간 합리적 방법 찾을 것"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주를 찾아 '중재'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1급)이 11~12일 1박2일 일정으로 도의회를 비롯해 제2공항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 의회의 의견 청취 및 제주도와 의견 조율은 물론 주민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최근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 속도론자가 마무리됨에 따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위한 행보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첫날 좌남수 의장과 박원철(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듣고 제주도와 의견 조율에 대해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회 차원에서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한 국토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주문했던 상황에서 만남이 이뤄지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둘째 날에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을 찾아 지원방안에 대해 주민과 면담하고 또한 예정지 내의 승골조사 현장도 찾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공개토론회 때, 제주도가 합리적·객관적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존중하겠다는 국토부의 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제주도정과 의회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6일 제385회 임

사회 폐회 중 제10차 회의를 갖고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8~9월 1·2단계에 걸쳐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1단계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한 공론조사 또는 심층여론조사, 주민투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다. 이어 2단계로는 1단계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특위활동을 제시하고 도민 의견에 따른 향후 진행 방법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를 비롯해 찬성단체와 비상도민회 등 반대단체와 갈등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주도는 의회의 추진 계획과는 다르다. 찬반을 떠나 지역주민과의 직접 대화, 간담회 및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앞으로 두달가량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백극민기자 haru@ihalla.com



태풍 피해 대피한 어선들 제5호 태풍 '장미'로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10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 어선들이 대피해 있다. 강희민기자

조용히 지나간 태풍 '장미'... 큰 피해 없어

세력 약해... 하늘길은 차질 오늘까지 30~80mm 비 예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태풍 세력이 약한 탓에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0일 오후 1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제주 전 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는 풍랑주의보로 대체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지점별 강수량은 한라산 삼각봉 112mm, 서산 102.5mm, 성산수산 59.5mm, 성산 48.8mm, 선철 34.5mm, 신례 31.5mm 등이다. 태풍이 제주에 가장 근접했던 낮 12시에 제주도 전역에 초속

1~5m의 약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가장 많이 불었던 곳은 한라산 삼각봉 지점으로, 순간최대풍속 초속 24.2m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제주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11일 오전까지 30~8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일 오후 3시까지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이번 태풍은 세력이 약해 다행히 제주에 큰 피해를 남기지 않았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태풍과 관련해 피해상황은 접수되지 않았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특성상, 태풍의 왼쪽에 위치하면 상대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데 이번 태풍 '장미' 자체가 세력이 약한 데다

제주가 태풍 서쪽에 위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은 차질을 빚었다.

윈드시어(돌풍) 특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은 다른 공항 날씨 문제까지 더해져 이날(오후 5시 기준) 하루 총 42편(도착 11, 출발 11)이 결항했다. 이날 제주공항에는 국내선 출발과 도착 각 235편씩 운항될 예정이었다. 태풍 장미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귀포 동쪽 약 6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함에 따라 항공사들은 국내선 22편(출발 11, 도착 11)의 항공편을 사전 결항 조치했다.

또한 해상에서는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9항로 15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김현석·강다혜기자

격주 등교 학생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도·교육청 22일부터 배송 2만8000여명에 3만원 상당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가정 배송이 오는 22일부터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로 격주 등교 학생들을 위해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 업무협약과 제주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가정배송'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 오는 13일까지 학생 거주지 기본사항 조사가 이뤄지면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해 지역별로 이달 22일부터 9월 4일까지 가정으로 배송된다. 격주 등교 대상 학교는 37개교(초 15, 중 13, 고 9)로 학생 수는 2만8142명이다. 이들 학생에게는 1회에 한해 3만원 상당의 꾸러미가 배송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격주 등교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

진됐다. 또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및 생산농가의 원활한 출하로 영농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업체는 사전 안내문자 발송 후 배송하게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문 앞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꾸러미는 제주산 친환경농산물(감자, 양파, 기장, 단호박, 하우스감귤, 양배추, 찹쌀수수 등)과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감귤주스, 제주전통된장, 미숫가루)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8억4400만원)은 격주 등교에 따라 차감되는 수업일수의 미지출 예산(무상·친환경급식비)을 활용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김녕농협, 직장 괴롭힘 개선"

최근 김녕농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사업장 개선 권고 등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협동조합노조)는 10일 보도 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가 최근 협동조합노조가 김녕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고용노동부가

김녕농협에 사업장 개선 지도와 개선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노조는 "김녕농협은 지난 3월 9일 한림농협에서 부당전직된 직원 A씨가 이에 항의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직원회의를 참석 못하게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주지역 농·축협 공동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다혜기자

태풍 속 위험한 서핑... 해경, 서퍼들 적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적용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제주 전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 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동호인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도 애월읍 애월리 한담해변에서 서핑보드를 이용한 20대 A씨 등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서핑을 즐긴 시간은 제주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해당 서퍼들을 육상으로 이동조치했다.

제주해경은 A씨 등 6명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태풍 관련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애월항서 선저폐수 유출 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제주도 애월항에 선저폐수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연안북항 어선 A호(9.17t)의 선주 B(74)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7시 46분쯤 제주도 애월항 내 해양 오염이 발생했다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호 주변 해상으로 기름띠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 해경 조사에서 B씨는 선체 내 유성혼합물 약 20ℓ를 해상으로 유출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축 CONGRATULATIONS

승진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부면장

현상철
(부:현승경·모:강계순)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부면장(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이장 변홍문
개발위원회·노인회·부녀회·청년회 외 리민일동

축 CONGRATULATIONS

승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정과 농정팀장

양행석
(부:양운기·모:강명애)

제주특별자치도 농정과 농정팀장(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이장 변홍문
개발위원회·노인회·부녀회·청년회 외 리민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임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박동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밀양박씨 청재공파 무릉친족회 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상

국무총리상

임상만

2020 대한민국 유기농스타상품경진대회(업체류 부문)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림쪽파연구회 회원일동